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신석하 KID 거시금융연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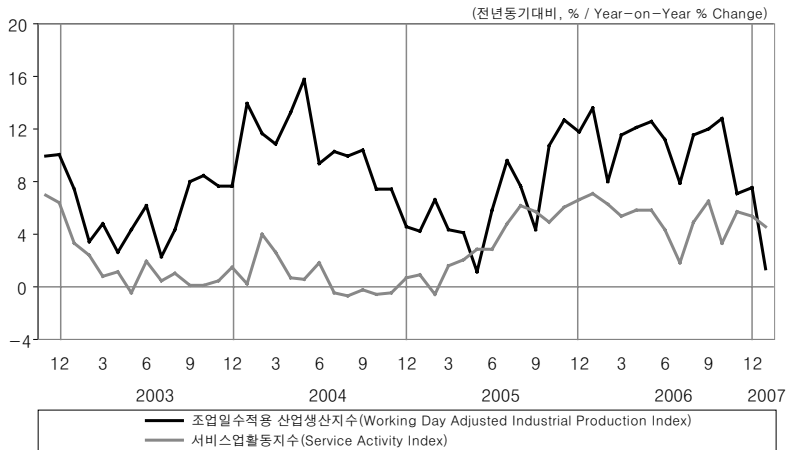
1 경기 동향 및 평가

최근 경제지표들은 경기 상황이 다소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작년 1/4분기 이후의 경기 둔화세가 점차 진정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외 경제여건의 불안 요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다. 1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여 전분기(5.2%)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설 연휴기간 이동('06년 1월 → '07년 2월)에 따른 조업일

산업생산(조업일수 적용)과 서비스생산 증가율



수 변동(2일 증가)을 조정한 생산지수는 1.4% 증가하여 전월(7.6%)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서비스생산은 설 연휴기간 이동에 따른 영향이 부문별로 달리 나타나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문화·운동 서비스업의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월(5.4%)에 비해 소폭 둔화된 4.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종합지수와 기업 체감경기지수들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소폭 개선되는 정도에 그쳤다. 1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2p 하락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에 비해 0.1%p 하락하였다. 한편 2월중 기업경기 실적 BSI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3월 전망 BSI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상당 폭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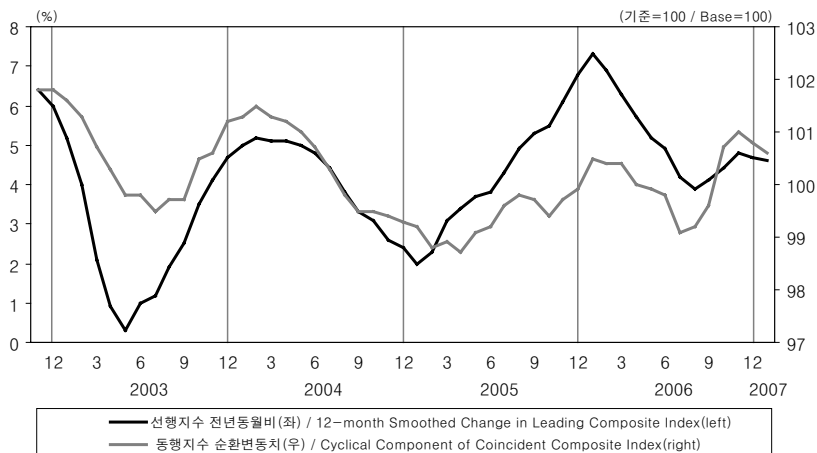
생산 측면의 부진과 대조적으로 내수의 경우에는 소비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1월중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1% (계절조정전월대비로는 0.8%)의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 이동('06.1→'07.2)에 따른 비내구재(음식료품 등)의 일시적 감소(-7.3%)를 감안할 때, 실제 소비수요의 추세는 이보다 견실할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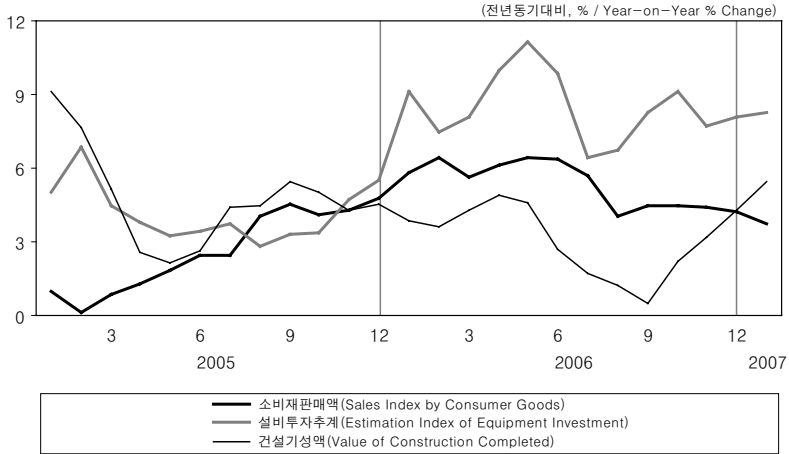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월중 설비투자추계는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신권발매로 인한 금융권의 신권지급기 설치 증가 등에 기인한 컴퓨터 부문과 수입반도체장비 및 자동차 부문 등의 투자 증가가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하였다.

건설투자의 경우 1월중 건설기성액 증가율이 13.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 하반기 이후의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건설용 중간재 제조업 지표들(11월→12월→1월)도 생산확대(3.9%→9.3%→15.6%), 출하확대(2.9%→10.9%→19.5%), 재고둔화(4.8%→2.4%→1.1%)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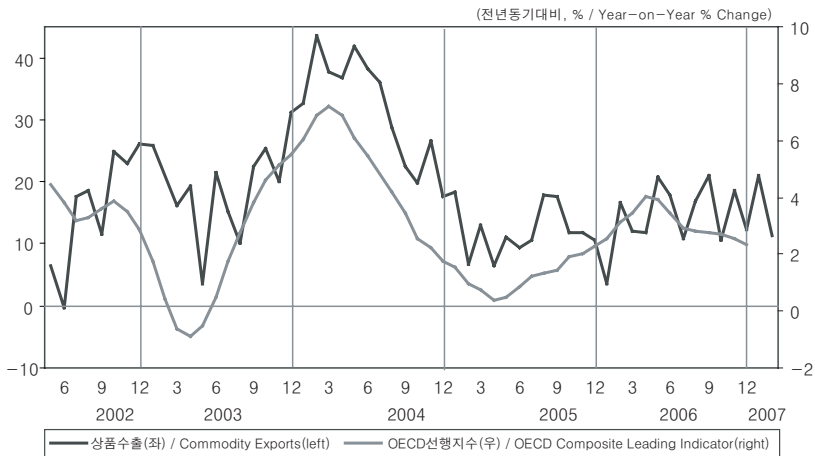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소비재판매액, 설비투자추계 및 건설기성액 증가율 (6개월 이동평균)



상품수출 및 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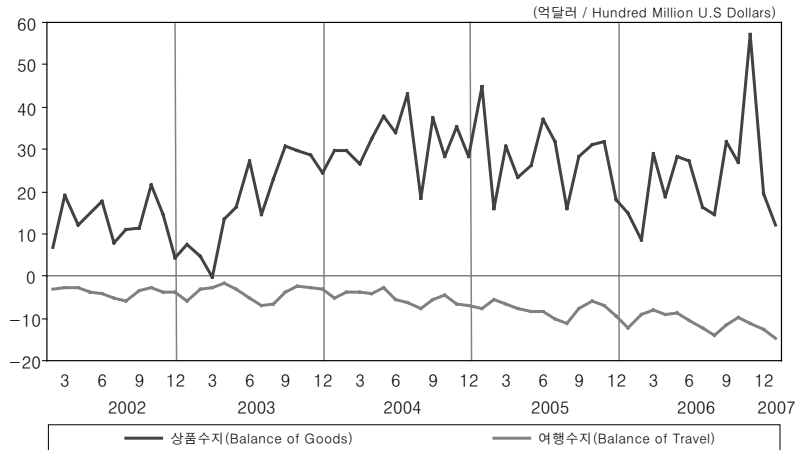


형적인 경기상승기의 모습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월중 국내건설수주가 민간건축을 중심으로 전월(29.8%)에 비해 크게 낮아진 9.7%를 기록하여 건설투자 확장세

가 향후에도 지속될 지 여부는 확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수출은 2월에도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전반적인 수출 환경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작년

상품수지와 여행수지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기록했던 석유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2월중 수출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1.3%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어 1~2월(평균 16%대)의 높은 증가세가 향후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국 등 전반적인 선진국의 경기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대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원/엔 환율의 하락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세가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수입 및 서비스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경상수지는 균형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원유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3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여행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중 경상수지는 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월중 자본수지는 직접투자(-2.1억달러) 및 증권투자(-4.5억달러)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차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자본수지의 흑자 지속은 환율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을 증가(1월중 23.5억달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월 중 계절조정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10.3만명 증가하여 전월(2.6만명)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계절조정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3.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는 설 수요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전월(0.2%)에 비해 상승세가 확대된 모습이다.

한편 2월중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중국 증시 급락 이후의 각국 주가하락률

	중국 China	싱가포르 Singapore	홍콩 Hong Kong	대만 Taiwan	한국 Korea	일본 Japan	영국 U.K.	미국 U.S.A.
2007.2.26	189	3,308	20,508	7,900	1,470	18,215	6,432	12,632
2007.3. 5	161	2,982	18,665	7,345	1,376	16,642	6,059	12,050
변화율 (% Change)	-14.5	-9.8	-9.0	-7.0	-6.4	-8.6	-5.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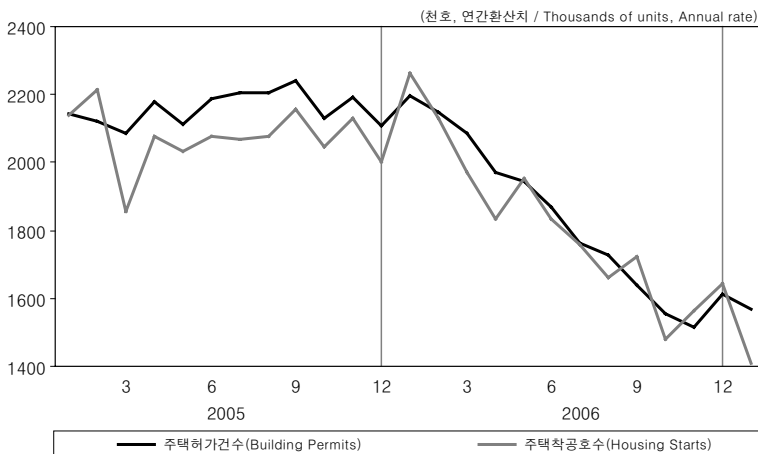
왔던 금융시장은 월말에 발생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파급되는 모습이다. 2월중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확대에 기인하여 장기금리가 15bp 내외 하락하였으며, 주가도 4% 내외 상승하는 등 국내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월말에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락과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해외 증시의 동반 약세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국내 금

용시장이 영향받고 있다. 다만 지난 수년간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던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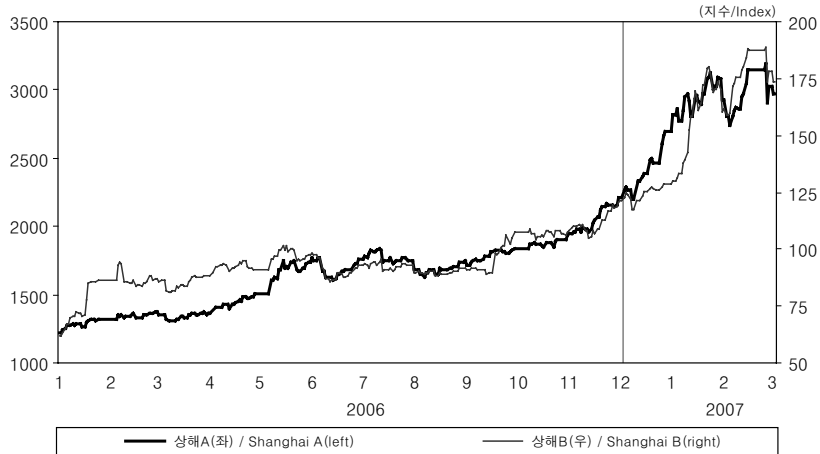
II 대내외 경제여건

대외적으로는 유로경제와 일본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반면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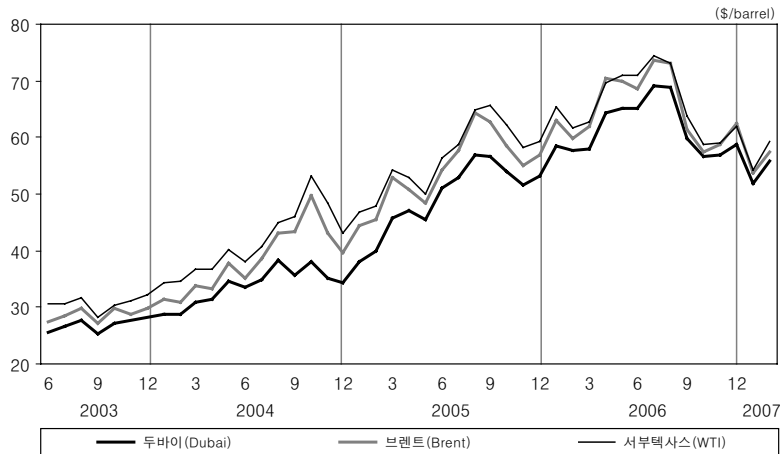
미국경제의 주택시장 관련지표



중국의 주가지수



국제 유가



재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로경제는 경기상황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경제도 소비

관련 지표들이 정체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과 자본재 지출 확대를 배경으로 정책금리를 0.5%로 인상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4/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3.5%에서 2.2%로 대폭 하향 조정되고 부동산 경기가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30% 내외 하락하였던 미국의 주택착공호수가 11~12월 2개월 연속 반등하여 미국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1월의 지표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고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였던 중국 증시가 조정됨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급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의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세계경제의 환율 및 경상수지 불균형과 '과잉유동성'(일본의 저금리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유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되는 모습이나 최근에는 OPEC의 추가 감산, 지정학적 불안, 석유제품 재고 감소 등에 기인하여 소폭 상승하고 있다. 원유이외 원자재가격은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 및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요 증가 지속 등에 기인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III 향후 전망

아직까지 경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7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06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4%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경제는 2006년 4/4분기에 3/4분기의 1.1%보다 낮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에 기인하여 우리경제의 구매력이 개선됨에 따라 내수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대외여건의 커다란 변동이 없다면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전기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완화된다면 상반기보다 소폭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교역조건의 악화추세가 진정되면서 소득증가율과 소비증가율 간의 괴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에는 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기업부문의 재무구조조정 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7%대 중반의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건설투자는 선행지수 등의 추이를 감안할 때 2006년 하반기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난 완만한 회복세가 2007년에도 지속되어 연간으로 2%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지난 수년 간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상품수출(물량)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여 2006년보다 증가율이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상품수입(물량)은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로 인해 증가율이 2006년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실업률은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연간으로 3.6%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의 일시적 하락요인들이 점차 소멸되면서 2007년에는 2006년(2.4%)보다 다소 높은 2.7%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정도

의 급격한 환율하락 추세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2006년에 나타난 농축수산물 가격의 이례적 안정과 집세의 시차효과 등이 2007년에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비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